

## 3 뉴스

故 장기철 초대회장  
10주기 추모식



## 12 특집 I

장애인종합민원상담 실무자교육  
장애인직업재활 실무자 워크숍



## 13 특집 II

유엔 권고 이행 위한  
장애인 최저임금 보전 토론회



## 14 사회공헌

사회적 약자 지원 앞장  
효성그룹



# ‘장애인종합민원상담 실무자 교육’ 열려

## 150여명 참가...전문성 강화 교육 진행



‘장애인종합민원상담 실무자 교육’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충남 예산 덕산스파리조트

에서 ‘2015년도 제1차 장애인종합민원상담 실무자 교육’을 개최했다. 지장협은 종전과 달리 교육의

참여확대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 2회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장애인종합민원상담

실무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의 특강, 보건복지부 장애인

인정책과 박찬수 사무관의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지장협 임상범 정책지원부장의 ‘2015년 변경된 복지시책’, 대전여성장애인연대 김순영 사무국장의 ‘사례를 통한 여성장애인 상담기법과 응대’ 등의 강의로 구성됐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초창기 근무 경험을 상기하며 “장애인종합민원상담 실무는 장애인의 고충을 가장 가까이 접하는 중요한 업무”라며 “실무자들은 장애인의 민원 해결을 위해 상담인의 어려움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업무 지식 향상을 위해 공부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위해 애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모든 실무자들이 지장협의 장애인당사자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변혁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품고 일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조별로 진행한 분임토의 시간에는 ‘규제개혁이 필요한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 복지부, 2016년 예산 발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3.9% 증가한 55조 6,000만 원 수준으로 확정했다.

복지부가 9월 8일 발표한 내년 예산은 정부 총 지출(387조 원)의 14.4% 수준이며, 복지 분야 총 지출(122조 9,000억 원)중에서는 45.2%를 차지한다. 이

중 장애인 관련 예산을 담은 취약계층 지원은 1.7% 증가한 2조 1,803억 원이다.

장애인연금 예산의 경우 5,483억 원으로 올해보다 135억 원 줄었다. 이는 지원대상이 7000명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초급여가 20만 5,000원으로

2,000원 인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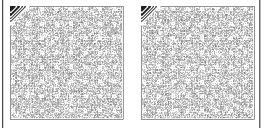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330억 원이 증가한 5,009억 원이다. 이는 활동지원 급여가 기존 4,470원에서 4,860원으로 390원 인상됐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도 3000명 증가했다. 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가 13억 원으로 신규 책정돼 최종중증장애인 3054명이 차등수가제 적용을 받게 됐다.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 예산은 28억 원 인상된 292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

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제도 운영비와 심사인력 확대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한 것이다. 또 장애판정체계 개편 시범사업은 올해 6개 지자체에서 내년 10개 지자체로 확대하면서 사업비가 4억 원 증가했다.

발달장애인지원 예산은 55억 원으로 올해보다 15억 원 증액됐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비를 10억 원으로 두 배 늘렸고, 공공후견 지원을 3억 원 증액한 15억 원으로 책정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장애인 국가대표 멘토가 전하는 꿈과 희망

## 유소년 선수들에게 불굴의 의지 전수한다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멘토 교육을 받고 있다.

유소년 운동선수들을 돕는 최고의 멘토가 되기 위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전문 멘토 교육을 받았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주최한 이번 교육은 8월 20일 가빛섬 3층 리부고시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유소년 선수 대상 멘토링 사업의 주요 멘토로 나서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10명이 참석했다. 그 주인공은 국내

유일 여성 휠체어마라토너 김수민 선수를 비롯한 이윤오, 유현대, 정종대 등 육상 선수 5명과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 국은주 회장을 비롯한 전동천, 백동규, 최정만, 심재열 등 배드민턴 선수 5명이다.

그밖에 예비 멘토 중에는 현역 선수 이외에도 대한장애인육상연맹 홍덕호 이사 등 10명이 참석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나눌 것을 기대케 했다.

이번 멘토링 사업은 2015년도 세빛섬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약자 지원·복지단체 협력 사업' 중 하나인 '세빛섬과 함께하는 멘토·멘티 만남의 날'로 비장애인 장애인 멘토링하던 사업들과 다르게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가 멘토가 되어 비장애인 유소년 선수를 멘토링하며 스포츠계 선배로서의 경험을 나눈다.

효과적인 멘토 활동을 위해 지장협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3가지 테마로 교육을 진행했다.

첫 번째 강의는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이 '멘토와 멘티의 소통과 신뢰 형성'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광환 중앙회장은 "멘토링을 진행하는 동안 합리성과 객관성, 그리고 보편성을 바탕으로 멘티와 신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는 용서와 배려, 양보, 희생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고정옥 문학박사는 "멘토는 자기가 못한 것을 하라고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한 것을 따라오게 하는 사람"이라며 "멘토가 먼저 자신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멘티 또한 자기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멘토링코칭센터 이용철 원장은 멘토링 활동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교육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 국가대표 선수는 "오늘 특강을 통해 멘티와 관계맺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며 "단순히 나이 차이로 멘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 진심한 관계맺음을 통해 인생의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란 조언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멘토링 사업을 후원한 ㈜효성의 세빛섬사업단 강영철 상무, 사회공헌팀 김봉수 팀장 등이 참석해 스포츠 멘토들을 격려했다. ㈜효성 사내 방송국 촬영팀도 함께 하며 이번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냈다.

## 장총련, '장애인이 정답이다' 캠페인

### 카카오톡으로 잘못된 사례 제보...200여 명 선물 증정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안진환, 이하 장총련)가 보건복지부와 장애 관련 용어 바르게 사용하기 캠페인 '장애인이 정답이다'를 시작했다.

'병신, 불구자, 애자, 장애자, 장애우' 등의 언어를 거쳐 현재의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인권신장과 함께 장애에 대한 용어 또한 달라져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장애우·장애자는 장애인'으로 통일하는 단일 용어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장총련은 장애 관련 차별적 용어사용 사례를 발굴해 시정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개인적·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장애



'장애인이 정답이다' 캠페인 QR코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인 차별의식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시정요청이 필요한 공공기관·마트·아파트 주차장·엘리베이터 등의 안내 표지판을 직접 찍어 사진을 제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장애인단체총연맹'을 검색하거나 사진 속의 QR코드로 연결한 후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면 캠페인 이벤트에 응모된다.

단, '장애우'를 고유명사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단체 및 기관의 입간판·출판물에 대한 제보는 받지 않으며, 중복제보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최종 수상자는 11월경 장총련 홈페이지(www.kofod.or.kr)와 카카오톡을 통해 발표하며, 으뜸상(1명) 50만 원 상품권, 버금상(3명) 30만 원 상품권, 보람상(5명) 10만 원 상품권 등 총 210명에게 다양한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 사항은 장총련 문화예술본부 캠페인 담당 김대옥 간사(02-784-3501~3)에게 전화하면 된다.

## 한국장애인인권상 후보 접수

### 10월 5일까지 후보와 웹툰·사진 공모

장애인인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의 공적을 기리는 2015 한국장애인인권상의 후보자 접수가 시작했다.

10월 5일까지 접수하는 한국장애인인권상은 장애인 인권현장의 각 함에 부합되는 활동을 전개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시상 부문은 인권실천부문, 인권매체부문, 기초자치부문, 공공기관부문으로 총 4부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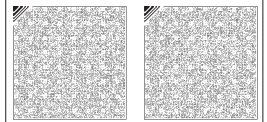
이와 함께 장애인 인식개선과 인권 옹호를 위한 웹툰·사진 공모전 접수도 진행된다. 공모전은 웹툰부문과 사진부문으로 나뉜다. 장애인 인식개선 의미를 전달

할 수 있는 웹툰과 장애인 인권옹호 의미를 담은 사진으로 응모하면 된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5인의 후보자(인권실천부문 2인, 인권매체부문 1인, 기초자치부문 1개소, 공공기관부문 1개소)와 총 4편의 우수작(최우수작 각 1인, 우수작 각 1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3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당선된 우수작은 2015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과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에 활용된다.





# 지장협, 故 장기철 초대회장 10주기 추모식

## 김광환 중앙회장 “장애인당사자주의 이념 실천하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9월 2일 故 장기철 초대회장 10주기 추모식을 진행했다.

고인이 영면한 경기도 양주시 운경공원묘원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고인의 가족과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항현 회장,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장선도 회장, 지장협 17개 시·도협회장 및 지회장, 산하 시설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을 마친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추도사에서 “10년이 지나도록 우리 가슴 속에는 장기철 회장의 우렁찬 음성과 당찬 기상이 깊이 남아있다”며 “이



지장협은 9월 2일 故 장기철 초대회장 10주기 추모식을 거행했다.

는 고인이 평생을 바쳐 일군 한국지체장애인협회라는 장애인 복지의 반석 위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최초로 장애인당사자주의를 주창하고, ‘확실한 장애인복

또 이 자리에서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항현 회장은 “장기철 회장은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살며, 그 누구도 가지 못한 어려운 길을 창조적으로 열었던 최고의 지도자였다”고 회고했다.

장기철 초대회장은 1986년부터 2005년까지 16년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을 맡으며 장애인 문제를 이문화해 한국의 장애인 복지수준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무총리 직속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위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을 지냈다.

## SDGs 시대, 장애계의 역할을 찾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NGO포럼 선포식 및 토론회 열려



유엔장애인권리협약NGO포럼 선포식 및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SDGs 대응 위해 UCNF 결성

국제사회는 MDGs(새천년개발목표) 시대를 마감하고 다가오는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시대를 맞이하는 기로에 서 있다. 한국 장애계는 이러한 변화의 기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6월 9~11일까지 뉴욕에서 열린 ‘제8차 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이하 당사국회의)’에 참석해 SDGs 수립 및 이행에 장애를 포괄해야 한다는 제언을 던진 한국장애인대표단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NGO포럼(UCNF)을 결성했다.

UCNF에는 당사국회의의 한국장애인대표단을 구성했던 한국

지체장애인협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서초센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휠와치(주), 밀알복지재단이 다시 모였다.

UCNF는 8월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NGO포럼 선포식 및 토론회’를 열고 지난 당사국회의의 결과보고를 진행하는 한편 ‘2015년 이후의 개발의제와 장애, 한국 NGO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펼쳤다.

## SDGs와 국내 장애정책 어떻게 연계할까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김태균 교수가 ‘Post-2015 글로벌 개발협력:장점과 전망’을 발표하며 시작했다.

김태균 교수는 SDGs의 장애인 관련 목표로 ▲장애인 관련 목표를 독립 항목으로 추진 ▲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 개선 ▲장애인 빈곤율 감소 및 소득보장정책 강화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장애인을 위한 의

료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 교육정책 강화를 꼽았다.

시민사회 단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으로서 역량과 지식 강화 ▲정부원조기관의 감시와 정보공개 청구 ▲한국 원조의 책무성과 투명성 강화 강조 ▲한국적 지식 및 기술 전달 감시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대외전략

국장은 “SDGs 시대, 장애계는 시민사회와의 외연확대와 장애인권 옹호를 위해 내부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각 정부부처에서 SDGs와 국내 장애정책을 연계해 정책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활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장애인연맹 조영인 국제협력팀장은 “장애 영역에서 국제 영역은 과거 예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파트

너십의 시대로 변혁을 앞두고 있다”며 “이에 맞는 새로운 시각과 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토론자인 한국장애인개발원 경영본부장은 2015년 이후 개발 어젠다에 대응하는 장애인 관련 NGO의 바람직한 역할을 내용분석-과제도출-정책요구-모니터링의 4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내용분석은 SDGs의 세부 내용을 장애인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단어와 문구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하

다. 다음 단계에서는 앞서 정의한 SDGs의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 세 번째 정책요구는 도출된 과제를 정책안으로 전환해 제도화되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은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검토하는 작업이다.

한편 이 자리에 모인 제8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의 참가 한국장애인대표단은 UCNF 선포식을 진행하며, 평등한 세계를 만들어 가는 개방적 연대체로서의 활동을 다짐했다.

# 장애인보장구 급여체계 현실화 시급

##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액 10년간 정체

### 보장구 구입 비용 부담 커

장애인보장구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일상생활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 그런데도 장애인의 생활환경, 육구, 장애특성 등의 반영이 미흡해 급여품목 확대와 보장구 급여기준 및 내구연한 조정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애인보장구 급여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해법을 논의했다.

8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는 인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양영애 교수의 발제로 시작했다. 양영애 교수팀이 국민건강보험 등록 급여서비스 장애인 중 표본 추출한 53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한 바에 따르면 89.5%의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 급여의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필요한 보장구를 구입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53.9%가 비용 부담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애유형별로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요구 품목을 조사한 결과 지체장애인은 전동리프트가 가장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고, 뇌병변장애인은 특수휠체어를, 시각장애인은 확대용 안경 및 렌



8월 31일 국회에서 '장애인보장구 급여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즈를 꼽았다. 청각장애인은 고성능보청기, 언어장애인은 의사소통 보조기구, 심장장애인은 수동휠체어, 호흡기장애인은 흡인기를 각각 시급한 급여 확대 요구 품목으로 지목했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 그룹과의 인터뷰, 문헌조사 등을 통해 정한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우선순위 기준은 위급성, 환자 본인 부담 크기, 국민적 수용성, 질병의 심각성, 후유장애의 심각성 순서였다.

이를 토대로 내놓은 급여확대

품목(안)에 따르면 지체장애의 경우 특수휠체어, 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순서로 적용됐고, 시각장애는 확대용 안경 및 렌즈, 독서확대기, 광학문자판독기·점자정보단말기 순서로 들어갔다.

그밖에 자폐성장애는 모니터링 및 위치추적 시스템을, 안면장애는 압력웃, 정신장애는 사회기술훈련용 보조기구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품목의 급여 확대가 예상된다.

양영애 교수는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장애인보장구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급여액·내구연한 현실화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영근 기획정책국장은 "전달체계 정리와 품목 확대보다는 장애인보장구 급여체계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현재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액은 2005년 이후 10년 동안 상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수동휠체어의 급여 기

준액은 40만 원이고 내구연한은 5년인데, 실제로 장애인이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200~3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나머지 초과분은 전적으로 장애인이 부담하는 실정이라며, 급여액과 내구연한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장애인보장구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 실현에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장애인보장구 정책 개선의 핵심은 급여 확대"라고 역설했다.

이에 따르면 급여 확대 우선순위 기준을 토대로 정확한 소요예산 추계와 실효성 있는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주축이 되어 후속연구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를 마친 최동익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장애인보장구 품목이 장애유형별로 다양하지 않거나, 건강보험 급여가 정해져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앞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보장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공무원시험 응시 장애인에게 메모대필 편의 제공해야

### 인권위, '시험 과목과 장애 정도를 고려한 편의제공'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1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7급 세무직 필기시험에서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메모대필 편의를 제공할 것을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 또 향후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 과목의 특성과 장애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개선할 것 도 포함했다.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윤 모(28) 씨는 2015년 국가공무원

시험 7급 세무직의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필기시험 중 회계학 과목에 계산 문제가 다수 출제되므로 계산 과정에서 산출되는 숫자(값)를 대신 메모해 줄 수 있는 편의제공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에 긴급하게 구제를 요청했다.

인사혁신처 측은 필기시험에 제3자 개입은 시험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대필자의 성향,

계산능력, 의사소통 등에 의해 시험결과가 왜곡될 수 있어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쟁이 치열한 공채시험에서 다른 장애인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OMR 답안지 대필만이 가능하다는 입장 이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필기장애가 있는 응시자는 회계학 계산 문제를 암산으로만 풀어야 하기에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았

다.

또 메모대필은 응시자가 암산으로 계산한 숫자나 기호를 단순히 받아 적는 것이므로 이를 지원해도 시험지 여백에 본인이 직접 메모하며 풀이하는 다른 응시자보다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시험감독관 중에서 메모대필자를 직접 선정하고 대필 내용과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대필자가 문제풀이에 개입할 수 있다는 피진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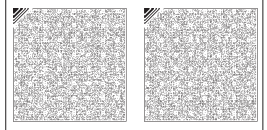
의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근거는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실질적 평등의 실현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에 대한 '직·간접차별'과 함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측은 이에 근거를 두고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경쟁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다양한 유형별 장애인 간의 경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인사혁신처가 메모대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펼쳤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여성장애인 예산 18억 원 삭감 논란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정부 규탄 기자회견 열어

정부의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축소 및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상임대표 유영희)과 전국 22개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는 9월 8일 국회 앞에 모여 여성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운영하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을 2016년 하나로 통합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어서 올해 5월 28일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통합 관련 조정 결과를 배포했다. 배포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국회 앞에서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축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용은 "사업 관리부처를 복지부로 통합하며, 통합 시 기존 수혜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8월 3일 제2차 예산안심의 시 기획재정부는 2016년 두 사업 예산으로 복지부가 제출한 26억 원 중 8억 원만 책정하

고, 18억 원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전국 22개소의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66명과 장애유형별 맞춤

서비스를 받던 여성장애인 이용자 1만 8112명은 갈 곳을 잃게 됐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전국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여성계, 장애계는 정부와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며 8월 7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여 왔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유영희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이제라도 여성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권, 모성권, 노동권, 안전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예산을 확실히 수립해야 한다"며 "우리 여성장애인들은 여성가족부에 정책 의지와 책임을 철저히 묻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증액할 때까지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향후 5년의 대안

### 양적 성장 넘어 질적 내실화 추구해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2015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예산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4,679억 원으로, 장애인 관련 단위사업 예산 중 장애인연금(2015년 5,618억 원)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로 시행 5년 차를 맞이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상임대표 안진환)는 8월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5년의 진단과

향후 5년의 대안을 말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현재의 활동지원제도에서 장애인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급여량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 장애인당사자가 만65세에 도달할 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 지역사회 또는 거주시설 중 어디서 살 것인지 등 현재 장애인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꼬

집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의 활동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월 한도액인 급여량이 인정점수를 기반으로 한 인정등급에 의해 획일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당사자 입장에서 한도액 안에서의 제한된 삶에 대한 선택과 결정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본적으로 이 제도가 소비자 중심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인 활동보조인 중심으로 작동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는 열악한 활동보조인의 근무여건에 기인하기에 지속적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토론회 전경.

으로 서비스단이 상황을 주장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한상균 과장은 "장애인의 자기 결정에 의한 자립생활 이념이 활동지원제도의 근간이라는 인식에 동의하며 향후 제도 개선의 방향 설정에 있어 자립생활 이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활동지원제도는 그간의 양적 성장의 시기를 지나 이제 질적 내실화를 추구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지방자치단체, 활동지원 기관, 활동지원 인력, 장애인당사자 간의 상호 이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층 성숙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후천성 척수장애인 카테터 지원해야

### 문정림 의원, "배뇨관리 지원은 생존권"

사고나 질병 등에 따른 후천성 척수 손상으로 자연스러운 배뇨 활동이 불가능한 척수장애인의 배뇨를 위한 '자가 도뇨 카테터'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9월 10일 국정감사에서 "척수장애인은 소변 배출을 위한 카테터에만 월 27만 원을 사용한다"며 "생존권을 위해 배뇨관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가 도뇨'란 요도를 통해 관

모양의 얇은 호스인 '카테터'를 삽입해 소변을 배출하는 것이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하루에 4~6회 실시한다.

현재 정부는 '신경인성 방광' 보유자에 대한 '자가 도뇨 카테터' 건강보험 적용을 2013년 7

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선천성 척수장애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 보유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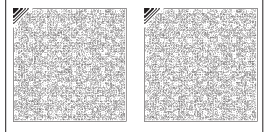
2014년 통계청 조사를 보면 지체장애인 130만 명 중 4.9%인 6만 3485명이 척수장애인이며, 이중 자가 도뇨 카테터가 필요한 후천성 척수장애인은 49.6%인 3만 1489명에 이른다.

후천성 척수장애인들은 선천성 척수장애인과 같은 증상으로 고통받지만,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비용부담 때문에 일회용 소모품인 '카테터'를 재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요로감염, 방광요관 역류 등 합병증을 겪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OECD 국가들은 자가 도뇨 카테터에 대한 보험적용을 모든 선천성, 후천성 척수장애인에게 하고 있다"며 "후천성 장애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 소유자에게 '자가 도뇨 카테터' 건강보험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장애인 세금혜택-②

## 승용차 · 보장구 구입 등 면세 혜택 소개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등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혜택’ 책자 표지. © 중부지방국세청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중부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등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혜택’을 정리해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 감경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부과할 때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비과세 재산, 채무액, 인적공제액을 차감한다. 이때 인적공제액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추가한다. 공제금액은 장애인 1명당 500만 원 곱하

기 기대여명 연수를 계산하면 된다. 기대여명은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 ◆승용차 구입 소비세 면세

1~3급 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할 때(1대에 한함) 500만 원 범위에서 조건부로 개별소비세 및 이에 부수되는 교육세를 면제해 준다.

또 장애인용 승용차의 면세 항목도 있다.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로 취득세 또는 자동차

세 중 하나의 세목에 대해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차량에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 ◆보장구 부가가치세 면세

장애인용 보장구 및 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 회귀 난치성 질환자 치료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를 적용해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 ◆장애인 고용 기업 세제 혜택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 받은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의 100%를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추가 감면한다.

또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시설 투자업체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위와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 저상버스 도입, 18.5%에 불과

## 강동원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제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저상버스 도입이 정부의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저상버

스 도입률은 18.5%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의 2014년 목표인 24.7%보다 6.2%나 낮은 수치다.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에는 2014년 24.7%, 2015년 32.2%, 2016

년에 41.5%로 저상버스 도입을 늘리겠다고 나와 있다. 계획대로라면 2014년 저상버스는 8061대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6026대에 불과했다.

지역별 저상버스 도입률은 서울이 32.5%로 가장 높았고, 강

원도가 30%로 두 번째였다. 그러나 부산(15.9%), 대구(17.1%), 광주(13.5%) 등 광역시는 도입률이 20%가 채 안 됐다. 심지어 경북(5.5%), 제주(6%) 등은 크게 저조했다.

현재 저상버스 도입 부담비율은 서울의 경우 국가가 40%, 지방자치단체 60%이며 그 밖의 지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한다. 강동원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이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저조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이

라고 분석했다.

이에 강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조정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8일 제출했다.

강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당초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고려해 부담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 감면 hi-pass 행복단말기

국민행복 보급사업으로 가격을 확~ 내렸습니다 (5만대 한정)

~~177,000 원~~ → **48,000 원** (장애인1급~3급)

~~177,000 원~~ → **78,000 원** (장애인4급~6급 / 국가유공자)

휴먼케어 행복단말기 HUMC-100

- 최첨단 지문인식센서 장착  
지문 인식률, 지문 인식 속도 우수
- RF 통신방식으로 통신 성공률 우수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인증, 고객만족도 1위  
통행료, 카드잔액, 단말기 상태 음성 안내

**hi-pass 통행료 100%면제**  
국가유공상이자(1~5급)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5급) / 독립유공자

**hi-pass 통행료 50%할인**  
장애인(1~6급) /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6~14급) / 고엽제후유(의)종 환자

대표번호 1688-3017

신청·접수는 전국 소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도협회 및 시·군·구 지회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별도판매 : 승용차 행복단말기 24,900원 / 4.5톤 이상 화물차 행복단말기 24,900원



# 전국지체장애여성대회 성황

## 장애여성지도자 발굴 및 육성 목표로 열려



제주도에서 열린 제18회 전국지체장애여성대회 전경.

지난 9월 1일부터 3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제18회 전국지체장애여성대회가 열렸다.

전국 17개 시·도와 230개 시·군·구를 대표하는 여성지체장애인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다 함께 웃음으로 여는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3일간 개회식을 시작으로 강연, 제주레일바이크, 교류의 밤, 한울랜드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장애여성리더십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장애여성지도자를 발굴하며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부형종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장은 “전국에서 모인 여성장애인 지도자들이 이번 대회 참여를 계기로 지도자 리더십을 발휘해 궁극적으로 장애인 권익 및 인권과 복지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북지장협 민원·편의 실무연수

### 전반기 사업에 관한 분임토의 시간 가져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영식, 이하 경북지장협)는 9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2일간 안동리철헤호텔에서 민원·편의 실무연수회 및 하계수련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회는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김영식 협회장의 특강과 실무자들의 전반기 사업에 관한 분임토의 시간을 가졌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각 권역별 장기자랑을 실시하는 이벤트도 함께 열어 메르스로 연기됐던 하계수련회를 대신했다.

김영식 협회장은 “이번 연수회에서 실시한 분임토의를 참관한 결과 각 지회별 직원들의 열의가 대단히 높았다”며 “직원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교육, 대외협력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지장협이 민원·편의 실무연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동백문화사 창업과 장애인복지 권익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 단체는 향후 경북 지역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독도에서 지체장애인가계수련대회

### 대구지장협, 광복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고취



대구지장협이 독도에서 지체장애인가계수련대회를 진행했다.

“대한민국의 아침은 독도에서 시작된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가계수련대회(협회장 김창환, 이하 대구지장협)가 독도에서 지체장애인가계수련대회를 개최했다.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이번 대회는 상대적으로 외출 기회가 적은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다양한 체험을 진행하는 대구지장협의 대표적인 행사

중 하나다. 올해는 광복70주년을 기념해 참가자들에게 일본의 역사 왜곡 실상을 알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과 나라사랑의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해 울릉도 및 독도에서 실시했다.

이번 대회에는 대구 지역 지체장애인 130명을 포함해 구미 오상고 풍물단, 2015 미스경북 수상자 등 180여 명이 참여했다. 이중 대구지장협 자원위원인 박언희종합내과병원 박언희 원장은 장애인 의료지원단장으로 합

계 했다.

참가단은 포항시청에서 개회식을 진행한 후 한국일보 유명상대구본부장의 독도 특강을 들었다. 참가단을 태운 배가 울릉도 일대를 지나 독도에 도달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특히 지체장애인 130명이 한 번에 독도를 방문한 일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준비과정부터 실행단계까지 쉽지 않았지만, 독도 사랑 및 국토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로 강행할 수 있었다.

김창환 협회장은 “우리가 단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것을 두고 주변의 우려가 있었지만, 체계적인 사전 준비와 안전하게 질서를 지키며 배려한 참가자들 덕분에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며, “독도 땅을 밟은 순간의 전율을 잊지 않고 앞으로 독도 수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김포시지회-김포충기협 MOU

### 저소득 장애인 삶의 질 개선 약속



김포시지회와 김포시충청기업인협회가 MOU를 체결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가계수련대회 김포시지회(지회장 이경규, 이하 김포시지회)와 김포시충청기업인협회(회장 장성균, 이하 김포충기협)가 저소득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 8월 6일 이경규 김포시지회장과 김포충기협 카이스전자장성균 회장은 위와 같은 포괄적 후원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개선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후원 사업을 펼쳐 나가기로 하였다.

양 협회는 협약서에 명시된 상호 협력 내용을 기초로 한 전략

적 제휴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 지체장애인 중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이들을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김포충기협 부회장이 주축회사 동서의 이영대 대표와 대한장애인양궁협회장인(주)진성테크 노회인 대표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함께 다짐했다. 양 협회는 향후 긴밀한 교류를 통해 상호 역량을 확인하고 각각의 자원을 활용해 선정된 대상자에게 최선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편 각 분야의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인 협의체인 김포충기협은 관내 충청 출신 기업인의 모임이다. 약 40여 개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으며, 지역 사회의 책임 있는 기업인으로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 영·호남 장애인지도자 교류 연찬회

## 지역 간 사회통합 및 장애인 지도자 역량강화 도모



영·호남 장애인지도자 교류 연찬회 기념 촬영.

영·호남 교류를 통한 지역 간 사회통합 및 장애인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2015 영·호남 장애인지도자 교류 연찬회'가 전주 풍남관광호텔에서 열렸다.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형곤, 이하 전북지장협)가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영식) 임직원을 초청해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80여 명이 참석해 우의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전북도 내 문화탐방(진안 마이산 및 전주 한옥마

음)으로 친목을 다지는 한편 서로 간의 발전을 위한 시·군 회장들의 열띤 토론 자리도 펼쳐졌다. 이와 함께 우수사업 모범 사례 발표도 진행해, 양 단체 장애인 복지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장애인 지도자의 역량강화는 물론 동서 화합을 이루는 교류의 장이 되었다.

전북지장협 관계자는 "5년째 맞이하는 영·호남 장애인 지도자 교류 연찬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양 단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전북 장애인 편의증진 전문가 워크숍

### 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른 교육 진행

지체장애인편의시설전북지원센터(센터장 김형곤, 이하 전북센터)가 14개 시·군 편의지원센터장 및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무주 양수발전소 홍보관 강당에서 '2015년 시·군 편의증진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김형곤 센터장의 특강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국 홍현근 국장의 '편의증진법 전후 법안비교', 전북센터 황병현 사무처장의 '회계 및 센터운영'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김형곤 센터장은 이날 워크숍



전북센터 실무자들이 워크숍에서 강의를 듣고 있다.

참가자들에게 "편의증진법 법률 개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한 센터운영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

큼 양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 '김천행복콜' 간담회 개최

###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



김천시(교통약자지원센터)가 김천행복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천행복콜'을 운영하는 김천시교통약자지원센터(센터장 박선하, 이하 김천센터)가 지역 장애인단체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김천행복콜은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가 2015년 1월 김천시에서 수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역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발이 되고 있다. 이용자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해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9월 3일,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강당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박선하 센터장과 김천시청 교통행정과 구영훈 과장, 시내 각 장애인단체

장과 실무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국민의례에 이어 내빈소개, 센터장 인사, 행복콜 운영현황 설명, 건의 사항 순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행복콜 차량에 대한 지역 홍보 방법부터 현재까지의 운행실적과 사례를 설명했다. 2부에서는 각 장애인단체장의 건의사항을 듣고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박선하 센터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나눈 미흡한 점을 개선하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청송군지회 역량강화 교육 개최

### 여성자립지원센터·민원편의센터 임직원 업무 향상 다짐



청송군지회 임직원이 역량강화 교육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청송군지회(지회장 조승철, 이하 청송군지회)가 여성자립지원센터

와 민원편의센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8월 18일 청송군 파천면 중평

숲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청송군지회 임직원뿐 아니라 한동수 청송군수, 이광호 군의회 의장, 정지천 청송경찰서장, 경상북도의회 윤종도 의원, 군의회 신호광, 이상우, 강경탁, 현시학, 권태준, 정미진 의원과 그 외 많은 내빈이 참석해 교육 참가자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정지천 청송경찰서장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관련해 특강을 진행했다. 교육이 끝난 후 장기자랑 시간을 통해 단합하며 지역 장애인 복지 향상의 의지를 함께 다졌다.

조승철 지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장애인 복지 향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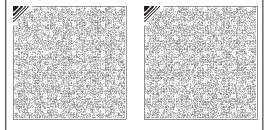
을 위해 고민하는 한편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갈 힘을 얻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에 앞서 식전공

연으로 청송색소폰동호회의 색소폰 연주와 청송문인협회 시인으로 활동하는 박성애 씨의 시낭송이 있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베이비부머 명예기관장, 북부장복서 활동 시작

## 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위해 노력할 것



북부장복 문상부 명예기관장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에 베이비부머 명예기관장제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립북부장재인종합복지관(관장 손영호, 이하 북부장복)은 지난 7월 31일 문상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베이비부머 명예기관장으로 위촉한 후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발걸음을 뒀다.

베이비부머세대 명예기관장으로 위촉된 문상부 명예기관장

은 현재 세명대학교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30년 공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외된 장애인들을 돕고자 9월 4일 북부장복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명예기관장으로서 첫 번째 활동은 이용고객 및 직원과 소통하는 것이었다.

문상부 명예기관장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열정을 나타냈다.

이어서 장애인 자립을 위해 운영하는 카페 ‘꿈틀’을 방문했다. 문상부 명예기관장은 직접 카페 업무체계를 하며 장애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일정을 계획한 북부장복 손영호 관장은 문상부 명예기관장의 재능기부에 고마움을 표현하며 “명예기관장제가 지역 복지발전에 새로운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 성인지적장애인의 기차여행

### 아산장복 주간보호시설 사회적응훈련 진행



아산장복이 성인지적장애인과 기차여행을 다녀왔다.

아산시장재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복) 주간보호시설은 9월 10일 성인지적장애인, 자원봉사자, 인솔교사 등 20명이 기차여행을 다녀왔다. 이번 사회적응훈련은 대중교통을 활용해 성인지적장애인의 적응력 향상을 꾀하고자 마련했다.

다. 아산시에서 대전까지 함께 기차여행을 하는 동안 한 이용자는 “처음으로 기차를 타봤다”며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내비쳤다.

대전에 도착해 바닷가로 이동하자 평소 감정표현을 잘 못 하던 이용자까지도 넓은 바다를 보며 큰 소리를 냈고,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시원하다고 미소 지었다. 한 이용자는 “대전바다를 처음 구경했다”며 즐거운 마음을 표현했다.

아산장복 이창호 관장은 “주간보호시설 이용자들이 이번 사회적응훈련을 통해 세상 속으로 한 발짝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인지적장애인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홍성장복, 일진전기과 장애인 가사지원

### 취약 가정 살기 좋게 환경개선



일진전기과 홍성장복 직원들이 장애인 가사지원 활동을 펼쳤다.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호현, 이하 홍성장복)과 일진전기(주)가 함께 장애인 가사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홍성장복 재가지원팀과 일진전기 홍성공장 직원 8명은 지난 9월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홍성군 갑산면 소재 최○○ 씨 가정에 방문해 청소 봉사를 펼쳤다.

최 씨 가족은 5명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인 동시에 장애인인 취약 가정으로 가족구성원이 집 정리를 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연로한 아버

지는 동네의 온갖 박스, 고철, 비닐, 의류, 쓰레기 등을 집에 쌓아두며 생활해 방 두 칸을 거의 사용하기 힘들 지경이었다. 다섯 식구가 비좁은 거실에서 물건과 쓰레기에 치이며 생활하던 집이 이번 가사지원으로 깨끗해졌다.

가사지원 활동을 마친 홍성장복 김호현 관장은 지원해 준 일진전기과 고마움을 표현하며 “이번 공헌활동을 계기로 더 많은 지역의 기업들이 다양한 봉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서산장복 이용자, 정보화 사례 발표회 수상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 및 고용안정실현과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실시한 ‘제12회 충남 장애인 정보화 성공사례 발표회’에서 서산시장재인복지관(관장 김준곤, 이하 서산장복) 이용자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에서 민형란(지체2급) 씨가 ‘용기 있는 도전이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고, 최미진(지적3급) 씨는 ‘컴퓨터와 나의 운명적 만남!’으로 금상을 수상했다. 또 이희중(지체2급) 씨는 ‘박새에게 배우다’로 은상을 받았다.

서산장복 김준곤 관장은 “우리 복지관은 지역 장애인에게 꾸준히 정보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



서산장복 이용자들이 충남 장애인 정보화 성공사례 발표회에서 수상한 후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다. 다양한 삶의 의미를 전달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에 다양한 삶의 의미를 전달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남부장복, 어르신에게 따뜻한 생신상

충청남도남부장재인종합복지관(관장 임대혁)은 7~8월에 생신을 맞은 저소득 장애인 어르신을 위해 ‘생신상차려드리기’를 실시했다.

8월 31일 공주시 중동에 위치한 ‘맛깔(대표 허현주)’에서 진행한 생일파티에 주인공 자격으로

로 자리에 앉은 어르신들은 연신 고마움을 표현했다.

사업을 진행한 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생일파티는 식사뿐 아니라 부어 궁남지에서 나들이를 진행했는데, 어르신들이 심리적 고립감을 덜 수 있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진천장북 1주년, 김광환 중앙회장 특강

## 장애인 당사자주의와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강연



김광환 중앙회장이 진천장북 개관 1주년 기념 특강을 진행했다.

진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한명수)은 8월 28일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운영법인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을 초청해 특강을 들었다.

김광환 중앙회장은 이날 복지관 직원을 비롯해 충청북도지체장애인협회 진천군지회 직원까지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강연을 시작했다.

김광환 중앙회장은 '장애인 당사자주의와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을 주제로 두고 "‘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혁의 주역이 되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지장

협'이라는 협회의 신조를 가슴에 새기고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달자의 역량강화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복지관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한명수 관장은 "꼭 필요한 내용으로 특강을 해 준 김광환 중앙회장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며, "오늘의 가르침을 늘 상기하고 실천해 이용고객에게 고품격 같은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나는 교통안전 선생님”

### 영천장북 장애-비장애 아동 통합체험 활동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제근, 이하 영천장북)은 8월 21일 포항 어린이교통랜드에서 장애-비장애 아동 통합 체험 활동 '나는 교통안전 선생님'을 실시했다.

이날 체험활동은 만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장애-비장애 아동 중 통합체험 활동을 희망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교통안전 교육장에서 먼저 10대 교통사고 알기, 신호등 있는(없는) 횡단보도 건널 때 주의점, 내륜차 사고교육 등을 진행했다. 이어서 교통안전 체험에서 발길걷기, 안전띠 매기, '나도 경찰관' 등의 체험을 실시했다.

영천장북 관계자는 "이번 체험을 통해 장애-비장애 아동들이 상호작용하고 교통안전에 대



포항 어린이교통랜드에서 진행한 장애-비장애 아동 교통안전 통합체험.

한 인식을 중요하게 가질 수 있도록 강조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제근 관장은 "하루 동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계획하겠다"고 전했다.

## 더위 물리친 냉면 한 그릇

### 문경 우복동 식당, 지역 장애인 대상 식사 나눔



문경시 우복동 식당이 지역 장애인에게 냉면을 후원했다.

지난 8월 12일 말복을 맞아 경북 문경시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냉면 나눔이 펼쳐졌다.

모전동에 위치한 우복동 식당(사장 김상겸)은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훈) 이용인 50여 명을 초청해 냉면을 후원했다.

우복동 식당의 김상겸 사장은 "삼복더위에 지친 장애인들이 마지막 여름 고비를 건강하게 나기를 바라는 마

음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틈틈이 식사 후원을 통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당 측은 식사 내내 바쁜 가운데서도 초청한 장애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음식을 지원하며 정성껏 대접했다. 냉면 한 그릇을 다 비운 한 장애인 "시원하게 잘 먹었다"며 "냉면 한 그릇에 담긴 이웃의 넉넉한 마음에 더 힘이 난다"고 전했다.

## 한살림축산영농조합법인, 괴산장북에 쌀 후원

### 소외된 지역 장애인에게 따뜻한 情 전하고파

충북 괴산군에서 소외된 장애인을 위한 백미 후원이 주목받았다.

한살림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강영식)은 지난 9월 8일 괴산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효선, 이하 괴산장북)을 찾아 백미 20kg 30포대, 찰쌀 20kg 10포대를 전

달했다.

강영식 대표는 전달식에서 "소외된 지역 장애인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고자 후원하게 됐다"며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향한 후원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괴산장북 정효선 관장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는 날씨에 정을 담은 쌀을 후원받아 마음이 넉넉해진다"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쌀뿐만 아니라 한살림축산영농조합법인의 따뜻한 마음까지도 함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한살림축산영농조합법인이 괴산장북에 백미를 후원했다.



# 목포장복, 복지 세븐업 과정 실시

## 전남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능력 향상 도모



목포장복에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문호, 이하 목포장복)은 전남지역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능력 향상을 위한 7가지 교육 프로그램 '복지 세븐업(7up)'을 실시했다.

'복지 세븐업'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으로 한국장애인복지관 전남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8월 25일 목포장복에서 교육의 장을 열었다.

이날 전남 장애인복지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두고 창의력을 주제로 교육을 펼쳤다.

교육을 받은 한 종사자는 "이번 교육은 분야별 전문 강사들로 구성되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변화의 흐름을 읽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 활동보조인 '休' 그리고 '어울림'

### 김천장복 주도, 충북 단양 고수동굴 및 구인사 나들이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선하)은 8월 31일 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힐링 체험활동 펼쳤다.

'休' 그리고 '어울림'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체험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는 활동보조인이 몸과 마음의 여유를 느끼며 서로의 화합과 친목 도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계획됐다.

이들은 충북 단양의 고수동굴 및 구인사를 찾아 자연이 만든 아름다움을 체험하며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보냈다.

체험에 참여한 한 활동보조인은 "나들이를 통해 몸과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며 "지친



김천장복의 활동보조인 체험활동 기념 촬영.

피로가 풀렸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이 목

적이며, 서비스대상자는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1~2급 중증장애인 또는 지적·자폐성·뇌병변 2~3급 장애인이다. 이들은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받는다.

## 달성장복, 취업자 간담회 열려

### 정보 교류와 정서적 유대 강화



달성장복 취업자 간담회 기념 촬영.

취업 준비 중인 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 자리가 열렸다.

달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우선)은 지역의 구직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구직기술 교육 및 정보 제공, 취업 자신감 부여 등 역량 강화를 위해 9월 5일 '2015년 3차 취업자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취업 장애인 7명을 포함해 총 21명이 참가했으며, 경주 엑스포 일대에서 진행됐다.

프로그램으로는 취업 선배들의 취업 성공이야기, 직장 생활 노하우 등을 듣고 구직자들이 취업 다짐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경주 일대에서 경주 엑스포, 플라잉 공연, 테디베어 박물관 등을 관람하며 자연스럽게 서로 교류했다.

이날 정우선 관장은 "앞으로도 구직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간담회를 실시해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정서적 유대 강화를 꾀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 달구벌장복, 대구은행과 행복보양축제

### 7년간 저소득 이웃 6000여 명에 보양식 제공



달구벌장복이 대구은행과 행복보양축제를 개최했다.

지난 8월 12일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관장 강재형, 이

하 달구벌장복)에서는 대구은행과 함께 복지관 이용자 및 지역

사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보양축제를 개최했다.

말복에 맞춰 진행한 이번 행복보양축제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총 500명의 복지관 이용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복지관을 방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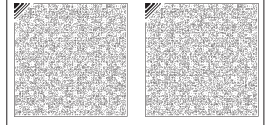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복지관 자부담과 함께 DGB사회공헌재단 후원금 100만 원을 바탕으로 마련했고, 대구은행 문홍수 IT본부 본부장 외 대구은행 임직원들로 구성된 대구은행 IT본부봉사단과 성서

사랑봉사단 26명이 삼계탕 배식, 식사보조 등의 봉사를 펼쳤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행복나눔봉사단) 봉사단원 10명도 식사준비에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평소 영양 섭취가 어려운 복지관 이용자와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양식을 제공한 이 행사는 올해로 7년째 진행됐다. 2014년도까지 복지관 이용자 및 저소득 장애인 5600명이 여름철 보

양식을 제공 받았으며, 가까이는 올해 7월 540명이 보양식을 섭취했다.

달구벌장복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장애인들의 영양 결핍 해소와 건강관리를 도모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더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복지 증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 장애인종합민원상담 실무자 교육 현장 스케치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8월 26~27일 충남 예산 덕산스파리솜리조트에서 '2015년도 제1차 장애인종합민원상담 실무자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장애인종합민원상담 실무자 150여 명이 교육을 받았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이 특강을 진행했다.



이건희 충남협회장이 교육장에서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박찬수 사무관이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강연했다.



지장협 임상범 정책지원부장이 '2015년 변경된 복지시책'을 강연했다.



대전여성장애인연대 김순영 사무국장이 '시례를 통한 여성장애인 상담기법과 응대'를 강연했다.



분임토의 시간에는 '규제개혁이 필요한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활발한 분임토의를 진행하는 실무자들.



조별로 분임토의 결과를 발표했다.

## 2015년 직업재활시설 실무자 워크숍 개최

지난 8월 20일부터 21까지 대전 유성 라온컨벤션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 주최로 '2015년 장애인직업재활실무자 워크숍'이 개최됐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최근 직업

재활시설에서 주요 이슈인 2016년 직업재활시설 평가 관련 지표 이해 및 평가준비 실무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이후 토론 등을 통해 실무적응방안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장협 기획정책국 김영근 국

장의 '법인의 이해' 강의를 시작으로 제이드교육 김민채 강사의 '조직의 활성화'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어 우석대학교 김동주 교수는 '2016년 직업재활시설 평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강의

를 했고, 끝으로 동작구립보호자 협회 이만규 부장이 '평가준비 실무'를 강의했다.

이번 워크숍을 기획한 지장협 시설지원부 나광석 부장은 "2016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와 관련해 평가지표를 올바

로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분야별 정보를 준비해 실무자 역량개발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행사의 의미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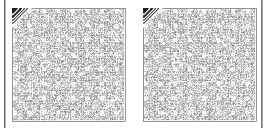


직업재활시설 실무자 워크숍 전경.



직업재활시설 실무자 워크숍 기념 촬영.





#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보전 논의 본격화

## UN 권고 이행 위한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전 모색 토론회

###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권고

최저임금은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다. 그러나 장애인근로자만은 예외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근거해 적용제의 대상으로 분류돼 사업자는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최근 UN 장애인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임금보전 정책을 통해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장애인근로자의 소득보장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올해 1월 장애인고용종합대책을 발표하며, 2017년 하반기부터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감액제로 개편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새누리당 이자스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국회의원이 9월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전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 감액제도 평가지표 개발 어려워

이 자리에서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는 발제를 통해 "감액제도는 최저임금제도보다 현실적이고 기존의 제도보다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대안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열린 토론을 벌이고 있다.

행하기 어렵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우리나라 행정체계가 상당히 미비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도쿄 예만 노동기준 감독관이 200명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인력이 부족해 차등화된 감액 정도를 적용해 제도를 운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음 발제를 맡은 은종균 정책홍보국장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의 문제의 해결책은 최저임금 보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보호 고용한 중증장애인에게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보조해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전하는 보조금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은종균 국장은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최저임금 보전을 지켜야 한다"며 "다만 최저임금 보전에 드는 예산의 경우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 기금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제도 도입 앞서 협의 필요

토론자로 참석한 김재익 상임이사는 "국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우선 활용해 직업재활시설이나 보호작업장에 최저임금 보전을 지켜줄 것"을 제안했다.

또 최저임금 문제와 중증장애인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연대고용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부·민간기업·비영리단체가 협력한 사회연대고용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중증장애인 고용실태 현

실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정훈 정책국장은 "장애인의 노동 문제는 언제나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영원한 피비우스의 피와 같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그는 장애인의 임금은 몇만 원을 더 줄 수 있는지의 문제를 떠나, 장애인 노동을 비장애인 노동과 똑같이 인정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장애인의 노동이나 비장애인의 노동이나 다양한 노동의 한 종류일 뿐이고, 다 같은 노동이라고 사고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노동과 임금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문제"라고 말했다.

다른 토론자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신직수 사무국장은 "직업재활시설에 감액제도

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잘라 말하며, "도입에 앞서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자들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제도 도입이 1년 반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세부내용을 내놓지도 않고 있으며, 짧은 기간 현장에서 우려하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용탁 팀장은 "우리나라의 직업재활시설이 보호영역 혹은 치료영역과 고용영역이나 일반고용 영역이 혼재되어 있다는 모호성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모호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의 제도가 운용됨으로 인해 근로자와 훈련생의 구분조차 모호해진 것"이라고 입을 뗐다.

그는 "그런 점에서 직업재활시설의 성격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황정호 사무관은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뿐 아니라 해외 사례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그밖에 직업재활시설의 최저임금 감액 적용을 위한 근로자 개념 정립, 장애인근로자 작업능력 평가를 위한 기반 구축, 장애인근로자 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인한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고용 감소 발생 문제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전 방안 모색 토론회 전경.



토론회에 집중하고 있는 청중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교육과 나눔을 통해

## 수혜자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기업



사회적기업 굿월스토어 효성 1호점을 2013년 10월에 개점했다.

㈜효성은 “나눔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교육과 나눔을 통해 수혜자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기업’의 비전을 바탕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효성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나눔봉사단’ 활동을 필두로 장애인, 청소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해외 지역 무상의료 지원 및 적정기술 전파 등 획일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의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 지속성 있고,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 귀감

효성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유소년 스포츠 멘토링 사업을 후원하고 있다. 이는 2015년도 세빛섬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약자 지원·복지단체 협력 사업’ 중 하나인 ‘세빛섬과 함께하는 멘토·멘티 만남의 날’로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멘토링하던 사업들과 다르게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가 멘토가 되어 비장애인 유소년 선수를 멘토링하며 스포츠

선배로서의 경험을 나누는 사업이다.

멘토 교육 당일 효성의 세빛섬 사업단 강영철 상무, CSR팀 김봉수 팀장 등이 참석해 스포츠 멘토들과 감사의 인사를 나눴다.

또 효성은 지난 6월 서울시 중로구에 위치한 푸르메센터에서 의료재활 전문기관인 푸르메재단에 저소득층 장애아동 및 청소년 의료재활 지원기금 8,000만 원을 전달했다. 효성이 푸르메재단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13년으로, 올해 3년째 장애아동의 의료재활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재활 지원금은 경제적 형편 때문에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재활치료 기회를 제공해 건강한 신체발달을 돕고 있다. 이번 지원은 장애아동 본인의 치료비뿐 아니라 비장애 형제의 교육비도 포함됐다. 비장애 형제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능력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효성 임직원 가족은 장애인 재활치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장애아동 가족과 양평 보릿고개 마을에서 송어

잡이, 딸기 수확 및 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펼쳤다. 장애아동 가족들은 가족 여행을 통해 긍정적인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시간을 보냈고, 임직원 가족들은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웠다. 오는 10월에도 가족여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 ■ 장애인 자립 위해 사회적 기업 지원 및 운영

효성은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 건강한 사회경제적 주체로 당당히 설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2013년 국내기업 최초로 기부와 재활용,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융합한 사회적 기업 ‘굿월스토어 효성1호점’을 열었다. 효성 굿월스토어는 개인·기업·사회단체 및 효성 임직원들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해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비장애인 점장·물류매니저 포함 장애인 8명, 새터민 2명 등 12이 근무 중이다. 2013년 10월 오픈 이후 올해 8월 말 기준 총 매출액 3억 원을 돌파했다.

이와 함께 컴브릿지(컴Bridge)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폐기 및 매각처리 되는 전산기기를 수거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해하는 직업이다. 이 사업은 장애인을 채용해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난 4월에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에넌복지재단’에 전산자재 약 1000대를 기증했고, 사업장의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는 데 3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도 전산자재 약 1200대를 기증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효성ITX도 2013년 10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장애인 표준 사업장인 행복두드림을 자회사 형태로 열었다. 행복두드림은 효성ITX의 사내복지업무를 위탁받아 네일케어, 카페테리아 운영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곳에선 다양한 유형의 중증장애인을 채용해 생활 안정을 돕고 있다.

사업장에는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움직이기 편하도록 전용 화장실을 마련하고 자동출입문을 설치했다. 이들을 위한 점자형 명함도 제작했다.

### ■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선정

효성은 왕성한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요요마와 실크로드 앙상블’과 함께 지난 2010년부터 다문화가정 청소년 및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티칭 클래스’를 개

최해 왔다.

또 중증뇌병변장애아동시설 ‘영락애니아의 집’ 아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클래식 음악회’를 열고, 장애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온누리 사랑 챔버’와 학교폭력예방 뮤지컬을 만드는 ‘사단법인 아라민’을 후원하는 등 소외 청소년의 문화예술 지원을 펼치고 있다.

특히 효성은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80명으로 구성된 온누리 사랑 챔버 오케스트라에 악기구입·음악캠프·장학금 등으로 2014년 9월 1억 원을 후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한 바 있다. 효성이 후원한 지 8개월만인 올해 5월, 온누리 사랑 챔버는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90분간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단원들은 ‘Over The Rainbow’, ‘You Raise Me Up’ 등 20곡을 연주했고,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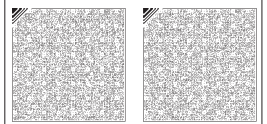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효성은 2014년 1월 ‘문화예술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첫 번째 시행된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및 우수기관 인증식’에서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기도 했다.

효성 CSR팀 김봉수 팀장은 “앞으로도 효성은 진정성을 가지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누리사랑챔버오케스트라가 세빛섬에서 공연을 펼쳤다.





# 장애인 보조기구 복지용구 제품 전시

## 부산시, '복지·재활·시니어 전시회' 개최



'복지·재활·시니어 전시회' 개막 테이프 커팅 장면.

부산 '복지·재활·시니어 전시회'(KORECA)가 지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해운대 벅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됐다.

8월 27일 오전 10시 30분 개막식 행사에는 서병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재활·시니어 전시회' 개막을 축하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다양한 고령친화용품의 효과적인 전시를 위해 이동복지기기관, 재활·보조기기관, 복지용구·요양서비스관, 건강 100세관, 특별관으로 다변화해 참관객의 관람편의를 도왔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국립재활원 재활로봇보급사업단 참가를 비롯해 8개국 170개사 560여 부스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으로 고령친화산업육성과 건강한 100세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과 공동주관으로 4대 중증질환 특별관을 운영함으로써 전시장 내에서 부산대표 종합·대학병원 및 기관들과 함께 특별생방송을 진행했다. 심뇌혈관질환 및 암 등 난치성질환 관련 정보 제공과 공개 건강강좌를 개최하여 업계 관계자와 중증질환자 가족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아울러 특별관 내 풍성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센터'는 고령친화산업 기업의 구인·구직자 채용면접과 상담을 실시했다. 또한 해외 수출상담회 및 국내 유통상담회를 개최하여 위촉된 내수시장과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참가기업의 해외진출 및 국내 유통망 개발을 도왔다.

참관객들을 대상으로 부산의료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부산 지역 전문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무료 건강검진과 진료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하는 기부나눔장터는 다양한 체험행사와 북카페 등을 운영한다. 더불어 예술심리치료, 휠체어 무상점검 서비스는 물론이고 행사장을 방문하는 단체관람객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했다.

전시회 개최 기간 △국제 고령친화산업 정책포럼 △부산광역시 광역치매관리 심포지엄 △요양보호사 및 간호사 보수교육 △한중 FTA 활용을 위한 중국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 △한·일 장기요양우수사례 워크숍 △고령친화산업 ICT 융·복합 아이디어

어전 전시 및 시상 등 다양한 세미나 및 동시 행사가 개최돼 복지·재활·시니어 산업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고령사회를 맞이한 우리 사회에 활기 넘치는 건강 100세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11개국 170개사 476부스, 상담회는 해외수출상담회 204건 202억 원, 국내유통상담회 177건 475억 원의 성과를 이뤘다. 이번 행사는 당초 올해 6월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메르스로 인해 연기됐다.



서병수 부산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전시제품을 시연 관람하고 있다.

장애인당사자의 손길로 작은부분까지 배려한 휠체어! 휠라인이 만듭니다.

국내 유일의 휠체어 맞춤 제작업체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기업 (주)휠라인



접이식 활동형휠체어



접이식 활동형휠체어



티타늄 활동형휠체어



고정식 활동형휠체어



FX활동형휠체어

### 휠체어구입시 점검사항

- ☐ 휠체어가 튼튼하고 견고한가?  
(휠라인은 럭비선수용 휠체어도 만들고 있습니다.)
- ☐ 휠체어의 사후관리는 용이한가?  
(휠라인은 순수 국내기업으로 국내에서 모든 공정을 진행하며 사후관리 지원합니다.)
- ☐ 휠체어가 부드럽고 나의 몸처럼 잘 움직여 주는가?  
(휠라인의 댄스스포츠용 휠체어를 국내 유수의 프로선수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 휠체어가 타고 싶은 디자인인가?  
(휠라인의 디자인은 직접 보시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 휠체어가 정교한 기술력으로 만들어 졌는가?  
(휠라인은 휠체어스포츠 9개 종목의 휠체어를 자체기술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휠라인은 2007년 장애인럭비휠체어 개발을 시작으로 테니스, 배드민턴, 농구 등 스포츠 휠체어를 비롯하여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의 활동형 휠체어를 국내기술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휠체어시장의 변화를 선도하겠습니다.

#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문화제

## 총 1017편 출품...65명 수상 영예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조항현, 이하 장고협)는 세종문화회관에서 '2015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문화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9월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명예대회장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훈 의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승규 이사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장고협은 4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두 달여간 이번 문화제 출품작을 공모했고, 운문·산문·사진·컴퓨터그래픽/동영상, 광고 등 5개 부문에서 총



2015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문화제 시상식 및 전국장애인로자기요제 전경.

1017편을 접수했다.

접수한 작품은 한국문인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대한산업미술가협회 등에 의뢰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 7월 1일부터 7일까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입상작을 선정했다. 입상작은 금상, 은상, 동상 등을 포함해 65명이며 총상금은 2,375만 원이다.

이중 운문 부문은 권조(지체1급) 씨의 '숨비소리', 산문은 신

강수(지체6급) 씨의 '겉질을 깨고 날다'가 금상을 수상했고, 사진은 김태영(청각2급) 씨의 '대구 농아인 축구', 컴퓨터그래픽/동영상은 이종일(청각2급) 씨의 '우리가 달려가는 목표지점은 하나입니다', 광고는 임현주 씨의 '능력을 인정하면 장애는 보이지 않습니다'가 각각 금상의 영예를 누렸다. 이외 부문별 입상작품을 전시해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운문 부문 대상 수상자인 권조 씨는 수상소감으로 "깊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 우리 장애인들이 정신적 여유와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게 지속적인 창작 동기와 발표 기회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장고협 조항현 회장은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을 축하하는 한편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장애인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한 노동·민원상담, 직장체육, 고충해결 등 직장적응지원 사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협회는 앞으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명예대회장인 주영훈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번 문화제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와 고용 증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장애인예술, A+ culture 운동으로

### 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 한국장애인메세나운동 모형 연구

"우리나라 장애인문화예술은 장애인복지에 비하면 30여 년 뒤쳐져 있다"

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는 『한국장애인메세나운동 모형 개발 연구 : 'A+ Culture' 운동의 방향성 제시』를 발표하며 위와 같이 밝혔다.

또 방귀희 대표는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뒤진 한국의 장애인문화예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한국장애인메세나운동 모형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가 개발한 예술운동을 A+ culture라고 이름 붙였다.

A+ Culture에서 A+는 A가 두 개라는 뜻이다. 첫 번째 A는 able로 가능성을 뜻하고, 두 번째 A는 art로 able art 즉 장애인 예술을 일컫는다. 이 같은 A 이니셜에 Culture를 붙여 문화운동의 뜻이 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공헌사업을 펼치는 기업 중 2015년 현재 장애인 관련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장애인메세나운동 모형 개발 연구 책자 ©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

기업은 73개사다. 이중 문화예술사업은 22개사이며, 그 가운데 장애인예술을 위한 사업은 13개사로 나타났다. 장애인예술이 차지하는 비율은 장애인사회공헌사업의 17.8%에 불과한 것이다.

또 '기업의 장애인문화예술사업에 대한 사회공헌 성과 실태조사'에서 기업에서 실시하는 장애인문화예술사업은 52.9%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어서 기업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통한 사회공헌 성과는 평균 28.3점(50점 만점)으로 사회공헌 성

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필요성은 장애인의 문화적 평등권 보장, 장애인 인식 개선, 장애인 고용창출, 지역 활성화의 4개 측면에서 모두 90%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요 연구인 장애인메세나운동의 모형 개발은 공공, 기업, 민간 분야에서 구체적인 모형을 제시했다. ▲공공 분야는 '장애인예술인이 찾아가는' 문화공연 기획, 문화누리카드 2% 장애인예술 지원, 장애인예술 공공쿼터제도를 ▲기업 분야는 메세나의 2% 장애인예술 지원, 장애인예술 기업 설립, 장애인예술고용제도, 장애인문화공연 프로그램 신설을 ▲민간 분야는 장애인예술장터 개설, 장애인예술 펀드 조성, 장애인예술 소비자 활동을 제시했다.

연구를 진행한 방귀희 대표는 "올해는 서울 대학로에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문화예술센터가 개관되는 해"라며 "장애인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밀집돼야 한다"고 연구 목적을 설명했다.

## '아장아장 합창단' 발대식

### 아산장복, 청소년 및 성인 장애인 28명으로 구성



9월 1일 아산장복에서 '아장아장 합창단' 발대식이 열렸다.

충남 아산시에서 희망의 하모니가 울려 퍼진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은 충남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배분하는 '삼성디스플레이와 함께하는 2015년 행복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아장아장 합창단'을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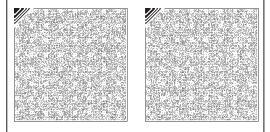
아산 지역의 청소년 및 성인 장애인 28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9월 1일 복지관 통합교육장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이들은 이후 주 1회씩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연습을 통해 실력을 쌓고 공연 재능기부와 관내 행사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이창호 관장은 "합창단 활동을 통해 모든 단원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며 "이제 곱음마를 떼기 시작한 합창단이지만 즐겁게 연습한다면 향후 지역사회에 희망의 하모니를 퍼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국제장애인탁구대회, 한국 메달 32개 선전

## 울산서 전 세계 장애인 탁구 선수 선의의 경쟁

전 세계 장애인 탁구 선수들이 울산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친 '2015 코리아오픈 국제장애인 탁구대회'가 4일간의 열전을 끝으로 9월 7일 마무리 됐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총 3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선전했다.

총 12개국 174명의 선수와 심판, 운영요원 등 35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TT1~TT11 등급별 남·여 개인전과 단체전 등 30개 세부종목이 펼쳐졌다.

한국은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 개인 단식과 2014년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인 단식 및 단체전 금메달리스트인 김영건(TT-4) 등 66명이 출전해 금메달 17개와 은메달 6개, 동메달 9개 등 3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국제탁구연맹의 랭킹포인트가 기존 20점에

서 40점으로 바뀌면서 2016년 리우 패럴림픽 출전을 노리는 선수들이 랭킹포인트 획득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연쳤다.

이번 대회는 신라스테이호텔을 선수촌으로 활용해 숙소와 경기장 간의 거리를 최소화하고,

시·도 장애인체육회와 상이군경회 울산지부 특장자 지원으로 선수들의 경기장 이동 편의를 도왔다.

또 국제라이온스 355-D 울산·양산지구에서 경기장 내에 자원봉사를 배치해 선수들의 경기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했다.

## 장애인 체육선수 연금점수 적용 확대 검토

###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아시아경기대회·세계선수권 인정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김성일)가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9월 4일 이천훈련원에서 진행한 이번 공청회에는 정부,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14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이란 정부가 운동선수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 체육은 비장애인 체육 선수들과 달리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거둔 성과

를 연금 포인트로 인정받지 못했다. 장애인올림픽 및 농아인올림픽에서 4~6위에 주어지는 평가점수도 적용받지 못했다. 평가점수는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메달 획득 후 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포인트 점수에 해당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작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종합 2위를 한 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도 연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한국스포츠개발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 제도개선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스포츠개발원 김권일 박사가 '연구연금 제도개선안 연구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정진완 과장과 한국복지대학교 오광진 교수, 휠체어육상 메달리스트 홍석만 선수 등이 토론을 벌였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측은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보고, 패널토론과 함께 의견수렴을 하는 자리로 향후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법규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며 "공청회를 계기로 더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금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돼 장애인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시각장애인 자전거 국토대장정

### 탠덤사이클 라이딩 전국 누벼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어 달리는 자전거 국토대장정이 펼쳐졌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 경륜경정사업본부 주최로 9월 5일 광명스피돔에서 열린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탠덤사이클 라이딩 대행진' 출정식에서 국토대장정이 시작됐다.

이날 출정식에는 양기대 광명시장, 이명호 경륜경정사업본부장,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광명시지회 유재홍 회장을 비롯해 참가자 가족 및 경륜 직원 등 100여 명이 참가자들의 도전에 박수를 보냈다.

경륜경정사업본부의 사회공

헌 사업인 '희망 리스타트'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5일 광명스피돔을 출발해 7일까지 2박 3일간 한강자전거길, 군산과 공주를 거쳐 세종시를 지나 대전 대청댐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170km를 달리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탠덤사이클이라 불리는 2인용 자전거에 동승해 앞좌석에는 비장애인이, 뒷좌석에는 시각장애인이 타 호흡을 맞춰 동시에 페달을 밟아가며 전국을 달렸다.

짧게는 하루에 20~30km에서 많게는 90km를 달리며 1일 평균 3~4시간 내외로 라이딩을 벌였다.

## 사랑의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

### 진천장복, 장애인 재활과 교류 증진 역점



게이트볼 대회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진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한명수)은 8월 25일 충북 진천군 초평 게이트볼 경기장에서 지역 장애인 게이트볼 선수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사랑의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게이트볼을 통해 장애인 스포츠를 홍보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 의지를

고취시키는 한편,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재활을 돕고자 계획됐다.

한명수 관장은 "이번 대회는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향상은 물론, 생활체육을 통해 교류를 증진하고 게이트볼을 보급·육성시키고자 개최했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지역장애인이 한자리에 모여 서

로 우의를 확인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을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천장복은 게이트볼 동호회 활동뿐만 아니라 장애인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풋살교실, 보치아교실, 탁구교실 등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양팔 없는 소녀와 멘토의 뜨거운 포옹

## 3살 소녀에게 삶의 용기 불어넣어



양팔 없는 장애인인 에블린과 제시카가 포옹하고 있다. ©ABC

자그마한 3살 소녀가 멘토를 만나 뜨거운 포옹을 했다. 서로를 꼭

안은 두 사람은 모두 양팔이 없다. 미소와 감동을 자아내는 포옹 장면이 최근 미국 ABC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화면 속 주인공은 미네소타에 사는 소녀 루스 에블린과 그녀의 멘토인 제시카 콕스(32)다.

두 사람은 모두 양팔 없이 태어난 장애인이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은 에블린의 엄마가 딸에게 힘이 되는 멘토를 만들어 주기 위해 찾아 나서며 성사됐다. 선천적으로 두 팔 없이 태어난 에블린은 남들과 다른 몸 때문에 크고 작은

고민과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

엄마 칼린은 “두 팔이 없는 장애인에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딸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면서 “멋진 어른이 된 제시카처럼 우리 딸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블린의 멘토 제시카는 양팔 없이 태어났지만, 자신의 장애를 모두 극복했다. 그녀는 양팔 없는 장애인 중 미국 태권도협회가 공인한 첫 번째 유단자다. 그녀는 발을 사용해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

아노도 훌륭하게 연주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녀는 비행기 운전면허까지 취득했다. 지난 2008년에 발로 조종사 자격을 딴 최초의 비행사로 기네스북에 등재돼 화제가 됐다. 또 2년 전에는 우리나라에도 찾아와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하기’라는 주제로 강연해 박수를 받았다.

자신과 같은 장애인인 에블린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제시카는 처음에 어떻게 아이를 안아줄지 생각했다. 그러나 사진에도 드러나듯 누군가를 포옹하는

데 있어 두 팔이 모두 필요하지는 않다며 웃었다. 제시카는 “우리 두 사람은 팔이 없지만 우리만의 포옹으로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고 밝혔다.

자신과 같은 모습의 멘토를 만난 에블린은 큰 용기를 얻었다. 에블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언니도 나와 똑같아. 언니도 팔이 없어”라고 말했다. 엄마 칼린은 아이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줘 고마웠으며 제시카가 남긴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사랑해. 너의 오른발잡이 친구가.’

## 전신마비 장애인 철인 3종 경기 완주

### 휠체어 타고 영국에서 가장 깊은 진흙지대 건너

교통사고 후 전신마비가 된 한 장애인이 영국판 철인 3종 경기인 ‘터프 머더(Tough Mudder)’에 휠체어를 타고 출전해 19km에 달하는 경기 코스를 완주했다.

그 주인공은 톱 캄이라는 21살 남성이다. 목 이하로 마비된 그는 턱으로 휠체어를 조종했다. 8월 23일 영국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톱은 2년 전 대학 입학을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마비가 됐다. 럭비 선수로 활동하던 그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다.

그러나 톱은 지난달 세계 최초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생각으로 조절하는 로봇의 사용법을 배우며 경기에 출전하려는 의지를 불태웠다. 그리고 지난달 ‘지구상에서 가장 험한 경기’라는 별칭으로 악명 높은 터프 머더 경기에 출전했다.

영국 글로스터 지역에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톱은 “사고가 나기 이전부터 터프 머더 경기에 출전하고 싶었다”며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톱은 전체 코스 중 철봉에 매달리거나, 진창 지나기 등과 같

은 몇몇 장애물은 통과할 수 없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완주했다.

톱은 경기에서 시간당 속도가 10km인 휠체어를 타고 영국에서 가장 깊은 진흙지대를 건넜다. 그의 완주를 돕는 데는 머리에 착용한 두개골 모양의 로봇 캄이 큰 역할을 했다. 로봇 캄은 초음파 젤이 채워진 전극 79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로봇 캄을 머리에 쓰고 자신이 걸어갈 방향을 생각하면, 79개의 전극이 톱의 생각을 읽어내 지도를 작성한다. 그 정보를 로봇 캄에 장착된 컴퓨터에 전달



전신마비 장애인 톱 캄이 철인 3종 경기인 ‘터프 머더’에 출전해 완주했다. ©데일리메일

한다. 이 정보로 톱이 타고 있는 휠체어가 움직이는 것이다.

톱은 “나 같은 전신마비 장애인은 이런 힘든 경기에 출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는 “지난 2년간 나는 내 발

이 앞으로 가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로봇 캄 덕분에 앞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첨단 휠체어와 로봇 캄의 도움, 긍정적인 생각과 끈기로 영국판 철인 3종 경기를 무사히 완주했다. 현재 그는 영국 브리스톨대학에서 철학과 정치학을 수학하고 있다.

## 장애 편견 없애는 인형 출시

### 장난감 회사 메이키즈, 다양한 장애 유형 담아

어린이들에게 장애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 제작한 인형이 영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미국 엔터테인먼트 사이트 무비파일럿은 영국의 장난감 회사 ‘메이키즈(Makies)’가 3D 프린터를 이용해 장애가 있는 인형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이 인형들은 언뜻 보면 평범한 외모를 갖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장애를 가

지고 있다. 긴 생머리에 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인형은 다리를 저는 듯 목발을 짚고 있고, 파마머리에 펑귄 모양이 그려져 있는 하늘색 티셔츠를 입은 흑인 인형은 보청기를 끼고 있다. 또 핑크색 드레스를 입은 사랑스러운 인형은 얼굴에 붉은 반점이 있다.

이에 장난감 회사 측은 “장애인을 키우는 부모들이 ‘나와 같은 장난감을 만들어 주세요(Toy like me)’라는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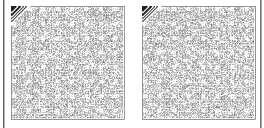


장난감 회사 메이키즈가 출시한 장애인 인형. ©Makies

을 벌여 만들게 됐다”며 “아이들이 이 인형을 보고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우리나라 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의 현실은?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박성오 과장



체육관의 장애인 관람석.

한 휠체어마라톤 선수가 토포 테스트를 하기 위해 운동장에 설치된 토포 검사실을 찾았지만, 출입문이 좁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었다.

휠체어사용 장애인이 아마추어 유도를 하는 아들의 경기관람을 위해 체육관에 갔다가 급한 응무로 장애인용 화장실을 찾았으나, 일반화장실만 설치되어 있었다.

2015년 현재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존재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 체육시설에 규정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사항

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규정한 것은 1997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운동시설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화시켰다.

차,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 (1) 체육관
- (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그러나 운동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중 의무사항은 많지 않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문), 소변기가 전부다.

이러한 규정은 편의증진법이 시행된 이후로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으며,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 및 체육활동 참여의 장애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장애인을 아직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 체육활동에는 관심이 없는 관람자로서의 입장만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 대한장애인체육회 발족 이후 체육활동의 주제로 서다

장애인을 관람자의 입장에서 체육활동의 주제로 변화시킨 사건은 대한장애인체육회 발족이었다.

2005년 11월 장애인체육진흥기반 구축 및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었으며, 이에 지역에서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증진에 따른 여러 동호회 및 모임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그리 많지 않다.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편의증진법 운동시설 관련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한 사회여건 때문에 장애인은 체육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또다른 돌파구는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침실
대상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대변기
운동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편의증진법 시행령(별표)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2007년 4월 10일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다.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조항을 통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는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에 차별을 받지 않고, 비장애인과의 똑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에는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영장에는 입수보조시설이나, 실내체육관에는 골볼골대, 좌식배구지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대상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에만 한정하고 있어 민간이 설치한 체육시설은 적용을 받지 않는 반쪽짜리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50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운동시설에 적용시킬 수 있는 편의증진법 규정을 개정하여 장애인이 모든 체육시설에서 차별 없이 접근하고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해야

이에 대한 대안은 체육시설의 주요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 중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휠체어사용 장애인의 민원이 많은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 세면대)은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이와 마찬가지로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관람석·열람석, 샤워실·탈의실도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장애인용 화장실을 의무로 변경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장애인을 관람자의 입장으로 보던 체육활동의 주체로 보던 무조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이다.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 동선에 단차가 없어야 하며, 중간이동을 위한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경기 관람을 위해서는 당연히 관람석이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체육시설을 이용할 장애인을 위해 샤워실·탈의실도 의무설치로 변경되어야 한다. 기타 다른 장애인 편의시설도 의무나 권장 설치 등으로 기준이 변경되어 장애인의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제16조 제2항 관련)

### 1. 시설의 종류

구분	시설설치 내용
공통 필수	편의 시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매개시설 - 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소변기·세면대), 샤워실·탈의실 등 위생시설 -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 시설 등 안내시설 - 관람석, 매표소 등 기타시설
실내 시설	수영장 - 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손잡이 등 입수 보조시설 - 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 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 보조 휠체어 실내체육관 - 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
실외 시설	야외경기장 - 경기장 진입 시설 생활체육공원 등 - 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

### II. 설치의무 적용 시기

1.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설치 체육시설: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
3.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 고용상담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장)



요즘 정부에서는 임금피크제가 화두(話頭)다.

2016년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정년이 60세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법적 정년은 55세지만, 2013년 국회에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을 제정하였고, 정부에서도 근로자의 정년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얼핏 들으면 좋은 제도 같지만, 그 이면에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가 흔히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부르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상당수가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 매도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 많은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부동산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정년연장이란 카드로 그 시점을 늦춰서, 부동산 하락을 막으려는 것이 숨은 의도라는 의견이 있다.

더군다나 베이비부머 그 이후 세대에게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정년연장은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데도, 정부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가 정말 좋은 제도라면, 공무원부터 먼저 시행해 보고 난 후에, 좋은 성과를

낸다면 민간으로 확대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당장 몇 개월 후면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고, 나머지 기업도 2017년부터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와 경영계는 소위 '60세 정년'이 초래할 부정적 시장효과, 특히 청년고용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임금피크제의 불가피성을 주장하지만, 노동계의 반대가 거세다.

왜냐하면, 임금피크제는 임금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년 60세로 인한 혜택은 정년이 임박한 베이비부머 세대뿐이며, 그 이후 세대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60세 정년'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임금삭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다만 60세를 넘어서는 계속 고용에 한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노사간 다툼이 첨예한 가운데 정부는 2016년부터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고용을 확대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사정 대타협 결렬로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의 합의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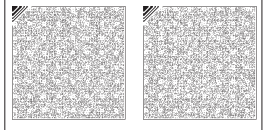
사실 임금피크제의 필요성은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정년연장 제도의 연차

특에 있다. 무엇보다도 "노사는 임금 및 고용 관련 정보의 적극적 공유를 통해 수용성 높은 임금피크제 모델의 개발과 운용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에 공감한다.

단순히 연령 기준 임금삭감형에서 벗어나 승급정지형, 근로시간조정형, 전문직제형 등 다양한 모델들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제도의 안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이 있다. 바로 장애인근로자의 임금보전에 관한 사항이다. 저임금에 시달려온 대다수의 장애인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 소리로 읽는 새보람



## 민원상담

임상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장)



## 차량과 관련한 지원제도

**Q) 장애인에게 차량은 신체 일부와 같은데 이와 관련한 지원이 궁금합니다.**

**A)** 먼저 차량 구입 시기에 인지하여야 할 것은 1~3급의 경우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1~3급 장애인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가족 명의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되며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장애 정도와 무관한 전체 장애인 모두에게 차량 구입 시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나 15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소형화물차의 경우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Q) 장애인 차량 구입자금 지원과 LPG 사용은 지속되는지요?**

**A)**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되면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종과 무관하게 LPG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입 시 비용이 부족한 경우 근로활동을 하는 장애인은 1,000만 원 이내에 3% 고정금리 이자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특수설비 장착 시는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할 수 있습니다.

**Q) 차량 운행과정에서도 여러 혜택이 있지요?**

**A)** 건강보험료 부과에 있어 자동차분은 감면이 됩니다. 등록장애인인 소유한 차량의 경우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이 면제되며 자동차 검사 수수료도 할인됩니다. 장애인표지판 발급대상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발급됩니다. 해당표지가 있

는 경우 공공주차장 요금이 감면됩니다.

**Q) 고속도로 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A)** 장애인표지판이 부착된 차에 해당차량의 장애인이 고속도로할인카드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통행료의 50% 할인 적용을 받습니다.

**Q)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A)** 장애인표지판이 있는 차량이라고 모든 차량이 주차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주차표지는 주차가능과 불가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행

상 장애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즉 지체장애인의 경우 하지절단장애인 1~3급, 하지관절장애인 전체, 하지기능장애인 1~5급, 척추장애인전체, 변형장애인 전체, 뇌병변장애인1~3급, 시각장애인1~5급, 신장장애인2급, 심장장애인1~2급, 호흡기장애인1~2급, 간장애인1~2급, 장루장애인2급, 지적장애인1급, 정신장애인1급, 자폐성장애인1~2급입니다. 또 차량에 장애인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 불가합니다. 그리고 관련법규 개정으로 장애인복지사업 등을 하는 법인, 단체들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주차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명칭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개정됩니다.



# 의무고용률 위반 시 정부 · 지자체도 고용부담금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정원의 3%)을 지키지 못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8월 18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 예

고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부과한다.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고용률보다 적게 고

용한 경우에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냈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의 경우에도 의무고용률 위반 시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었다.

지난해 말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65%를 기록했다.

## 2015 장애인통계 발간

###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및 해외 통계도 담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간한 '2015 장애인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이순홍)은 기관별, 분야별, 국가별로 나눠 장애인 통계를 정리한 『한 눈에 보는 2015 장애인통계』를 발간했다.

책자는 정책입안자, 연구자, 일반 국민 등 다양한 계층의 장애인 통계 수요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내외 장애인 통계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장애인 통계 수치를 제공하는 통계집이 아니라, 일반 국민도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통해 장애인 현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평을 듣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통계의 핵심 자료인 장애인 인구 현황,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기업체 장애인고용 현황, 장애인 교육 및 복지, 해외 장애인 통계 등이 포함됐다.

이 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홈페이지(edi.kead.or.kr)를 통해 볼 수 있다.

## 2015년 전국장애인 경영자 연수 참가자 모집

- 경영자로서 필요한 사항을 습득
- 시설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여 사업교류를 활성화

### ■ 일시

- 2015.10. 28(수) 13:00 ~ 10. 29(목) 13:00

### ■ 장소

- 비체펠리스(충남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 ■ 비용

- 1인당 100,000원(1인당 십만원)

### ■ 정원

- 선착순 100명(조기마감 될수 있습니다.)

### ■ 일정

#### ▶ 1일차(10.28 수요일)

- 참가자접수 / 중앙회장인사말 / 중앙회장특강 / 마케팅 / 친교의 시간

#### ▶ 2일차(10.29 목요일)

- 2016년 평가대비교육 / 수료증수여 / 폐회식 ※ 상기일정은 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 문의

- 02-2289-4303(시설지원부 황인옥)

### ■ 참가방법

참가신청서  
작성

참가신청서  
접수  
(이메일접수)

접수확인

※ 참가신청서는 <http://www.kappd.or.kr/> 협회자료 참고  
※ 신청서 작성후 이메일(niwhiwhi@nate.com)로 확인

매월 정답자 세 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 독 자 퀴 즈

1.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8월 26일부터 27까지 충남 예산군 스페리움리조트에서 '2015 장애인종합○○○○ 실무자 교육'을 개최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2. 2015년도 세빛섬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약자 지원·복지단체 협력 사업' 중 하나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8월 20일 세빛섬에서 ○○ 교육을 받았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 응모요령

응모요령 : 우편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 이메일 : [news@kappd.or.kr](mailto:news@kappd.or.kr)〉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호 정답

기능경기  
꿈틀

### 당첨자

전남 장흥군 김승규  
경북 칠곡군 정기일  
대전 서구 권혁조

###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어의 모든 원료는  
화학적 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향료, 천연색소와 화장용 원료 가운데 적합한 것만을  
당첨의 원료로만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을 원으로 스킨케어와 유해물질로부터 지킴과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피부는,  
자연의 선물로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위탁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기생충, 탈락물

천연비누

천연물결향

천연비누

천연비누

천연비누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직공조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노력합니다.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www.gabrielcenter.or.kr>

# 장년 장애인을 위한 맞춤 일자리

## ‘디지털 환경지킴이’ 를 소개합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 송인실 · 안자혜

### 디지털 환경지킴이란

빅데이터, 클라우드, SNS 등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의 수집 및 공유가 대폭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글, 사진, 동영상 등의 인터넷 기록을 지우는 디지털 장의사, 디지털 세탁사를 포함하여 디지털 유해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고자 인터넷 콘텐츠 모니터링 하는 사람을 말한다.

### 노동 시장에서 소외된 장년 장애인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장년 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태가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년 인구와 장년 장애인의 격차를 살펴보면 장년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4% 낮고, 실업률은 38% 높으며, 고용률은 24.8% 낮았다. 이를 바탕으로 장년 장애인이 전체 장년 인구에 비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 실태에서도 취약성이 드러났다. 「장년 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과 노동 시장 진입방안연구(2013. 김용탁, 전미리, 방진아)」 논문을 살펴보면, 장년 장애인의 56.2%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월급은 50~100만원 수준(59.6%)으로 나타났다. 업종도 단순노무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또는 경비 청소 영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장년 장애인이 구직 정보를 보고 있다.

노화 속도가 빠르고 2차 건강문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14년에 발표한 「장년 장애인고용 확대방안」을 살펴보면 비장년 장애인의 45.1%가 비정규직인 반면, 장년 장애인 중에서는 71.1%가 비정규직임을 알 수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용 형태가 불안해지고, 지속적으로 일하고 싶어도 취업이 되지 않아 장년 장애인의 노후준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에게서는 장년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 IT 분야에서 돌파구를 찾다

현재 장년 장애인 취업은 대부

분 경비 및 청소, 단순 생산직 등에 치우쳐 있다. 그러나 신체적 제한이 있는 중증 장년 장애인은 이마저도 진입하기 힘들다. 나이와 장애로 이중고를 겪으며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상황에 처한 장년 장애인의 직무 발굴 및 안정적인 일자리 개발이 시급한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분야는 IT였다.

최근 잦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침해 상담 건수가 기하급수로 늘었다. 이에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흔적을 지우는 직무가 2014년 유망 산업으로 선정됐다.

실제로 우리나라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도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콘텐츠 모니터링을 진행해 청소년들이 깨끗한 인터넷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직무가 확대되고 있다.

### 발상의 전환으로 찾은 '디지털 환경지킴이'

청년 일자리카고만 생각했던 IT 분야에서 장년 장애인의 일자리를 찾은 것은 발상의 전환에서 비롯되었다. 포털사이트가 길 찾기 로드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지우는 모니터링 업무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장년 중증장애인은 신체기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고령의 나이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지킴이」는 컴퓨터를 활용해 하루 최대 4~7시간 좌식근무가 가능하다. 인터넷 활용 능력 향상 교육을 병행한다면 향후

다수의 장년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 환경지킴이’의 업무

-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이용자들의 카페, 이미지, 지식in, 동영상 콘텐츠를 모니터링.
- 건전하고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정착시키고 보존.
- 실시간으로 부적절한 이미지나 동영상상을 거르기.
-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나 동영상, 개인정보 등을 전문적으로 삭제.
- 개인의 인터넷 흔적은 물론 세상을 떠난 고인의 인터넷 기록 정리.

### 다양한 직무 개발 필요

이상으로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디지털 환경지킴이에 관해 알아보았다. 장애인의 고용 및 노동시장은 아직까지 불안정하고 열악하다. 그 중에서도 고령과 장애를 동시에 가진 장년 장애인의 취업 장벽은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다양한 직무 개발을 통해 장년층을 위한 새로운 직무를 찾아내고,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해 직업영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장애인 직업재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구직 신청을 하는 장년 장애인.

### 참고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4년 직업영역개발 사업보고서 ‘함께 나누는 JOB’ 내일을 여는 꿈», 김경애 등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68호 2015년 9월 21일

회장·발행인/김광환 편집장/오형석 기자/이정희 발행처/(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영등포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news@kapp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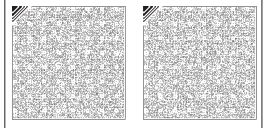
대표전화 : (02)796-4280 FAX : (02)796-4281 구독문의 : (02)2289-438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복지마당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소리로 읽는 새보람



## 누구를 위한 복지재정 효율화인가

중복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장애인 단체는 물론 복지 분야 전반에 걸쳐 복지예산 감소와 예산 감축으로 인한 복지 축소를 우려하는 소리들이 불거졌다.

그러나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사업이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긴급지원, 저소득층 의료지원 등으로 정비용인한 피해는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입게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은 취약계층을 바탕으로 돌아가는 비인도적이고 반 복지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질책했다.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이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다투고 있다는 얘기는 국민 모두가 아는 부끄러운 사실이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쳤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말하는 원인과 대책은 늘 똑같다. 언제나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러나 예산과 인

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그렇게 말하고, 전문가도 그렇게 말한다. 담당 공무원이며 복지단체 활동가도 그렇게 말한다.

복지예산은 늘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사회복지 사업을 정비한다고 한다. 없는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돈이 부족하니 꼭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긴급성 또는 비용 대비성과 등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서글픈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복지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중앙정부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예산을 확보해 조금이라도 지역주민의 취약

한 복지를 메우고자 하고 있다. 취약계층에서는 이마저도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한다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정작 보아야 할 이들은 보지 않고, 들어야 할 이들은 듣지 않고 있다.

지금도 늦지 않다. 정부는 복지예산의 효율성을 논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먼저 검토해보아야 한다. 과연 현재의 복지 수준이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인지를 말이다.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지, 활동보조인이 없어 불이나도 피하지 못하고, 호흡기가 빠져도 다시 착용하지 못해 여처 구니없게 목숨을 잃는 이들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고 정치인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 연후에 효율성을 논하는 것이 순리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재정 효율화에 대한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9월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은 공약사항이며 정부가 다 채우지 못한 복지의 빈틈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메우는 것을 틀어막아서 되겠냐”고 꼬집었다. 또 보

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안철수, 양승조, 이복희, 인제근, 최동익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복지예산의 유사·중복을 검토해 복지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후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지자체 사업 중 1496개 사업을 유사

### 새보람 칼럼

성남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곽상구 관장

## 초심에서 진심으로...

새해가 시작될 때 우리는 수많은 새해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그 계획은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 무너져 나약한 자신을 깨닫게 한다. 이러한 새해 계획부터 인생의 커다란 다짐까지 우리는 언제나 다양한 초심을 만들고 또 변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실망하는 일을 반복한다.

그렇다 보니 초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아연하고 또 다른 편으로는 긴장되고 두근거린다.

지장협 남영동 사무실은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바퀴벌레와 쥐가 돌아다니던 곳이었다. 사업비도 녹록지 않았고 급여도 낮았다. 아마도 내가 기억하는 지장협에서의 초심은 이렇듯 열악한 환

경, 그 속에서 함께 해 온 사람들과의 애뜻함, 그리고 열정이라는 모습이었다.

세월은 흘렀고 지금 나의 외적 모습은 일단 그때보다 훨씬 좋은 여건으로 보인다. 그러나 열정에 대해서는 머리를 숙이게 된다. 처음 지장협 가족이 되었을 때 품었던 초심과 열정이 아직도 함께 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이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초심이라는 것은 부족하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 높은 열정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그렇다보니 지금은 여건이 좋아졌는데 왜 그 때만큼 열정적으로 일하지 않는가, 그리고 왜 그 만

큼 정을 나누며 사람을 대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반성이 늘 함께 한다.

그렇다고 다시 열악하기만 한 그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어쩌면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은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처음 가졌던 마음은 이미 시간이 흘러 돌아갈 수 없다. 지금은 개인적인 여건도 주변의 상황도 다르다.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은 다시 가질 수 없는 마음이 되어 버렸다. 초심을 흠모하고 돌이켜 생각해 볼 수는 있어도, 그 마음을 똑같이 현재의 내 마음으로 삼고 나의 생활로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이에 초심으로 돌아갈 수 없는



많은 이들에게 진심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순수함을 기반으로 하는 초심과 달리 진심은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말한다. 진심은 부정을 멀리하며 흔들리지 않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지장협이 처음에 가졌던 초심은 숭고하다. 그러나 그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 초심을 그리워만 해서 안 된다. 그 속에 있는 진심을 찾고 그 진심을 다듬고 완성해야 한다. 열마 전 지장협은 고 상국 장기철 초대회장의 10주기 추모식을 마

련했다. 그러한 행사를 통해 지장협은 초심에 대해 회고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시간이 초심에서 진심을 찾고 완성하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라 믿는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진심을 공유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으면 한다. 진심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는 <중용>의 말처럼 말이다.

# 2015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 뭉치자! 일어서자! 나가자!

**2015.10.8(목)** 개회식 AM 11:00  
수원종합운동장(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 사 업 명 : 2015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 일 시 : 2015. 10. 8.(목) 11:00 ~ 16:00
- 장 소 : 수원종합운동장 일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개회식(식전공연포함)·시상 및 폐회식 장소는 실내체육관
- 내 용 : 식전공연, 개회식, 본경기, 응원전, 시상식 등

주최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주관 |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후원 |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KSPS  KOSAO

협찬 |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 2015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2015 MPSD  
The National Meeting  
for Life Partners  
of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그녀는 나의 손이 되어 주었고  
나는 그녀의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기대며  
가득이 되었습니다

- 일 정 : 2015. 10. 15(목) ~ 10. 16(금), 1박 2일
- 장 소 : 서울올림픽파크텔(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소재)
- 내 용 : 개회식 및 시상식, 축하공연, 문화탐방 등  
※ 시상 : 장한배우자상(전체대상), 아름다운배우자상, 자립상, 가화상, 모범가정상 등  
수상자 특전 : 장관 및 중앙회장 표창, 부상전달, 세보람 수기 연재 등
- 주 최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후 원 :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KBS

#### ※ 대회초청대상자 선정방법

- 1급~3급의 장애인 배우자 (부부 중 한 명이 중증장애인)로서,
1. 결혼생활이 만 3년이상 경과한 장애인 부부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추천인의 추천을 받은 자
    - 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추천을 받은 자
    - ②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7개 시·도협회장 및 230개 시·군·구 지회장(시설장)
    - ③ 유형별 장애인단체의 장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D 법인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